

李萬敷의 『道東編』과 李瀼의 『道東錄』을 통해 본 근기남인의 ‘道東’ 의식*

이 원 준**

-
- | | |
|-------------------|----------------|
| 1. 들어가며 | 4. ‘도동’ 의식의 특징 |
| 2. ‘도동’의 정의 | 5. ‘도동’ 의식의 공유 |
| 3. ‘도동’ 의식 형성의 동인 | 6. 마치며 |
-

초록: 본 연구는 息山 李萬敷(1664~1732)의 『道東編』과 星湖 李瀼(1681~1763)의 『道東錄』의 저술배경, 내용 및 구조, 특징 등을 살펴봄으로써 근기남인계의 ‘道東’ 의식의 실체를 시론한 것이다.

『도동편』은 退溪 李滉(1501~1570)과 栗谷 李珥(1536~1584) 등 한국 성리학자들만의 언설을 『性理大全』의 체제로 망라한 것으로, 石山은 도통의 적전을 퇴계로 상정하면서도 율곡의 설까지 아울러 수록함으로써 학파와 정파에 관계없이 한국 유학의 발전상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도동록』은 퇴계의 언설을 『近思錄』 체제에 준하여 정리한 것으로, 성호는 사서의 입문서인 『근사록』을 의식한 채 퇴계설을 정리함으로써 한국적 도학 전통의 기원을 밝히고 이를 한국적 도학 입문서로 삼고자 하였다. 두 저서는 모본의 차이로 인해 편차 구성, 인용 문헌의 범위, 분량 등이 일치하지는 못하다. 그러나 각 저서의 저자들은 한국 유학자의 언설만을 대상으로 삼아 수집 및 편집하고 이를 동일한 표제로 명명함으로써 ‘道學’ 또는 ‘道統’의 東傳을 형용하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퇴계를 도학의 정점이자 도통의 적전으로 설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石山과 성호는 당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출사를 포기하고 학문에 매진하여 후일 근기남인을 대표하는 석학으로 인정받았다. 두 저서가 저술된 시기는 남인이 정계에서 축출되고 서인 노론 정권이 들어서고, 尤庵 宋時烈(1607~1689)의 유지를 이은 노론의 존명의리사상이 萬東廟와 大報壇

* 이 논문은 2020년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국내 신진학자 초청 연구교류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 廈門大學 哲學系 博士後研究員.

이라는 중화계승 상징물로 가시화되던 때였다. 근기남인계인 두 학자로서는 노론이 선점한 중화계승 의식에 상응하면서도 저들이 구축한 주자학 절대주의 및 춘추의리와는 구별되는 사유를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두 학자의 '도동' 서적 저술은 근기남인계 지식인으로써의 책임의식과 위기 의식의 발로로, 퇴계가 도학의 정점이자 도통의 적전으로 설정되었다는 점은 이러한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 유학의 발전상을 드러내고 그 중심을 퇴계로 설정함으로써 식산과 성호가 제시하고자 한 '도동' 의식은 주자학 그 자체에 대한 정치한 분석에 기반하고 일련의 상징물로 가시화된 노론식의 '중화계승' 의식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지점이 있다.

핵심어 : 식산 이만부, 성호 이익, 근기 남인, 『도동편』, 『도동록』, 도동 의식

1. 들어가며

‘道東’은 斯文의 道가 중원에서 우리나라[東國]로 전해져 와 만개하였음을 의미하는 용어로, 여말선초 성리학이 전래된 이래로 道學 혹은 道統의 東傳 및 발전을 서술한 저서의 표제로 종종 사용되었다. 그러나 오늘날 전해지면서도 저자가 명확한 ‘도동’ 저서는 息山 李萬敷(1664~1732)의 『道東編』과 星湖 李瀼(1681~1763)의 『道東錄』 두 편 뿐이다.¹⁾

『도동편』은 『性理大全』의 편집 체제에 맞추어 14세기부터 17세기 중반까지 활동한 한국 성리학자 48인의 언설을 수집하여 20권 9책의 구성으로 엮은 저술로,²⁾

1) 두 저서와 동일한 성격의 저술로 추정되는 敬窩 金佺(1597~1638)의 『도동록』(『敬窩集』 卷8, 『行狀(金聖鐸)』, “所著詩文若干卷及海東文獻錄, 道東錄, 朝聞錄藏于家, 皆未及脫藁.”)과 陶齋 尹昕(1564~1638)의 『도동편』(『浦渚集』 卷26, 『道東編序』, “吾表叔陶齋尹公, 蒐輯我東先賢以道學名者若干公言行事蹟爲一書, 又人各爲贊, 名曰道東編.”), 尼溪 朴來吾(1713~1785)의 『도동편』(『寒洲集』 卷37, 『尼溪朴公行狀』, “又手摸退陶十圖及天命兩圖, 附以四七文字, 命曰道東編.”)은 오늘날 전해지지 않는다.

2) 현전하는 『도동편』 판본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289호 식산이만부전적에 포함된 18권 8책의 필사본과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된 17권 8책의 필사본 두 가지가 존재한다. 이 중 이만부전적본은 1992년 발간된 국역본과 1993년 영인된 『息山全書』에 수록되어 있다. 해당 판본의 목차에 따르면 완질은 20권 9책이지만 후반부의 두 권은 실전되었다. 규장각 소장본의 경우 규장각 해제에 편자미상으로 소개되어 있으나 立齋 鄭宗魯(1738~1816)의 서

栗谷 李珥(1537~1584)와 沙溪 金長生(1548~1631)의 언설까지 망라한 점에서 저자의 방대한 자료 수집과 균형잡힌 시각이 드러나는 한국판 『성리대전』으로 평가 받는다.³⁾ 『도동록』은 退溪 李滉(1501~1570)의 언설을 『近思錄』 구성에 준하여 상하권 총 16장으로 정리한 것이다.⁴⁾ 이 저서는 후일 順菴 安鼎福(1712~1791)과 邵南 尹東奎(1695~1773)에 의해 『근사록』 구성에 보다 충실한 『李子粹語』로 재편집되었지만, 최근에는 성호 학술의 다층적 면모 및 좌파-우파로 나뉘는 성호학파의 전개 양상과 결부되어 『이자수어』와 학술 지향이 다른 개별 저작이라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⁵⁾

성호는 각종 경서의 『疾書』와 『星湖僊說』 등 다종의 저술을 통해 한국 유학계에 새로운 사조를 제시하였으며, 식산 또한 『도동편』 외에도 『地行錄』, 『南風』 등을 저술하여 한국의 국토와 역사에 대한 애정과 자주 의식을 드러내었다. 또한 두 학자는 남인계 명문가 출신으로 세교가 두터웠으며, 서로를 학문적으로 존경하는 선배와 기대되는 후배로 인정하였다.⁶⁾ 더욱이 이들은 서인-남인 간 당쟁의 소용

문과 18권이 생략된 점을 제외하면 이만부전적본과 동일하다.

- 3) 정재훈, 2013 「식산 이만부의 학문과 『도동편(道東編)』」, 『국학연구』 23, 한국국학진흥원, 133면.
- 4) 『도동록』 판본의 경우 현재까지는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필사본이 유일한 판본으로 『이자수어』가 완성된 후 성호가 손자 李九煥(1731~1784)을 시켜 필사한 것이다.
- 5) 연구자들은 『이자수어』가 철저히 전통적인 도학적 사유에 기반한 것인데 반해 『도동록』은 성호의 독자적 사유 지향이 반영된 저서이며, 나아가 두 저서에서 나타나는 학술 지향의 차이가 성호좌파-우파를 가르는 지점이 되어 성호좌파는 『도동록』에서 노정되는 성호의 자득적 학문태도를, 성호우파는 『이자수어』에서 노정되는 성호의 도학적 학문태도를 각각 계승하였다고 본다.(강병수, 2011 「星湖學派의 東國 經學 思惟 - 家學과 自得의 학문추구 방법으로부터 -」, 『조선시대사학보』 57, 조선시대사학회, 144-148면; 정도원, 2014 「星湖 李瀾의 退溪 읽기와 學派分裂 - 星湖와 近畿南人の 학문적 접점과 “道東論”의 괴리」, 『유교사상문화연구』 58, 한국유교학회, 394-399면 참조.)
- 6) 식산의 부친인 博泉 李沃(1641~1698)과 성호의 부친인 梅山 李夏鎭(1628~1682)은 청남계 중진으로 당대에도 정치적 노선을 함께한 것으로 평가받았으며(『肅宗實錄』 卷1, 숙종 1년 6월 4일 辛酉 1번째기사, “穆老而巧密, 或左或右, 積尤老於涉世, 伸縮有術, 內扶大運等, 而外若中立, 宇遠初黨於鏞、穆, 後歸大運之黨, 如夏鎭、沃、威明、聯命等, 首鼠兩間, 而詔事穆、鏞尤甚.”), 식산은 성호의 가형인 剡溪 李潛(1660~1706)과 玉洞 李激(1662~1723)

돌이 속에서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으며, 이러한 경험이 계기가 되어 출사를 포기하고 학문에 매진함으로써 후일 근기 남인을 대표하는 석학으로 인정 받았다.⁷⁾ 한국의 독자적 유학 모델을 추구하거나 제시한 두 학자가 선배 유학자의 학설을 편집하고 이를 ‘도동’이라 명명한 사실은 이들이 당대 한국유학의 독자적 발전상에 대한 자부심을 지녔음을 보여준다. 무엇보다 학문적, 정파적으로 밀접한 연관이 있으면서 격화되는 당쟁 속에서 비슷한 경험과 선택을 한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도동’ 표제를 선택한 사실은 이들이 편차 구성이나 인용 문헌의 범위, 분량 등 모본의 상이함으로 인해 발생한 차이를 넘어서 동류의 의식을 공유하였음을 시사한다.⁸⁾

와 막역한 사이였다. 두 학자의 인연과 학문적 연관성은 이러한 세교에 기인하는데, 성호는 식산을 吾學의 宗匠으로 인식하였으며 식산 또한 성호를 吾道를 바랄 수 있는 大儒로 평가하였다. 『星湖全集』 卷66, 『息山李先生行狀』, “動靜相涵, 表裏互資, 視之于躬, 爲醇儒, 推之於人, 爲明師, 可謂處士之完名, 吾學之宗匠也.”; 『息山集』 卷8, 『答權台仲』, “訪亡友玉洞舊居, 用少文字, 將綿葛哭之, 琴書依舊, 九原難作, 慟悼寧可言. 惟其弱弟久不見, 得屢訪於旅舍, 言論風彩, 奄成大儒, 吾道可望, 嘉尙如何.”) 두 학자의 학술 교류 양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함영대, 2007 『성호 이익의 학문형성과 식산 이만부』, 『성호학보』 4, 성호학회 참조.

- 7) 근기 남인을 규정하는 기준을 활동 지역으로 한정할 경우 34세 이후 경북 상주에서 평생을 지낸 식산을 ‘近畿’ 남인으로 규정하기에는 난점이 있다. 그러나 식산이 眉叟 許穆(1595~1682)의 문인이라는 점과 성호 가계와의 관계, 안동권의 영남 남인계 학자들과 확연히 구분되는 학술 활동 등 학술 지향의 측면에서 식산의 정체성은 근기 남인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 8) 다만 아직까지는 두 저서에서 표제 공유 이상의 의미가 없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강병수는 정주 경학을 넘어서고자 한 데에서 출발한 성호의 저술이 식산의 저술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면서도 양자의 차이가 분명하다고 보았으며(강병수, 앞의 논문, 114면), 정만조는 성호의 저작을 『도동편』으로 소개하면서 식산의 저서와 표제가 동일함을 언급하지만 같은 범주의 책이 아니라는 점 또한 분명히 하였다(정만조, 2012 『성호의 정치사상 - 『맹자질서』를 중심으로 -』, 『성호 이익 연구』, 사람의무늬, 125면). 박지현 또한 『이자수어』에서 노정되는 성호의 도통 의식과 식산의 『도동편』을 연결하여 서술하였지만 『이자수어』로의 표제 변경 과정에서 식산의 ‘도동’과는 거리를 두었다고 보았다(박지현, 2020 『『이자수어(李子粹語)』 편찬에 나타난 성호의 퇴계학 계승의식』, 『한국학』 43, 한국학중앙연구원, 140면).

『도동편』은 1707년 자녀를 잃은 후 초고를 완성했다는 기록과 1709년 안동의 密庵 李栽(1657~1730)와 율곡설 수록 여부를 놓고 논쟁한 점을 참조할 경우 1708년경에 완성된 것으로 보인다.⁹⁾ 『도동록』은 『이자수어』로 개정되기까지 40여 년이 지났다는 성호의 기록과 중형 剡溪 李潛(1660~1706)이 장살되기 전까지 그가 과거 공부에 매진하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1706년에서 1712년 사이에 편찬된 것으로 보인다.¹⁰⁾ 두 저서의 저술 시기는 1694년 甲戌換局과 1701년 辛巳獄事를 거치며 남인이 정계에서 축출된 이후 서인 정권이 들어서고, 尤庵 宋時烈(1607~1689)의 유지를 이은 노론이 주자학을 절대화하고 이들의 존명외리사상이 1704년 萬東廟와 大報壇이라는 ‘중화계승’ 상징물로 가시화된 후였다.¹¹⁾ 식산은 만동묘가 지어진 해 『萬東祠議』를 저술하여 노론의 행보를 비판하였으며, 성호는 1706년 중형의 장살을 목도하고 그가 세간에 흉인으로 부정당하는 상황에 놓였다. ‘도동’ 서적이 이러한 경험이 있는 직후에 편찬되었다는 점에서, 식산과 성호의 저술 활동

-
- 9) 『息山集』 卷7, 『答吳致重3』, “僕存歿離索, 二大惡緒, 逢新尤劇, 無足言者. 去至月初, 棲里塾, 修道東編, 與之處者數人, 而來往同事者亦多. 臘月旬間, 轉往道院, 添會旁近士友, 與之讐校. …… 惟草藁謄本, 董至卒業, 爲卷者廿, 爲冊者十, 門類頗齊整不紊, 亦可便於考見, 但恨無人相與評隲, 庶免孤陋之病耳.”; 『密菴集』 卷24, 『年譜』, “三十五年己丑 …… 五月往商山, 與息山李徵士萬敷, 論道東編.”
- 10) 『星湖全集』 卷50, 『李子粹語序』, “竊自以不克該識其遺訓爲大羞吝, 輒採其要而錄之, 名以道東編. 爾來四十有餘年, 未及刊正, 吾友安百順鼎福欲更加添刪, 一遵紫陽之近思定例, 與朋友共之.”
- 11) 여기서 언급한 ‘중화계승’은 허태용이 복벌론으로 표상되던 중화회복의식이 명조 회복 가능성이 사라짐에 따라 변동된 조선의 중화담지 사조를 정의한 용어이다(허태용, 2009 『조선후기 중화론과 역사인식』, 아카넷, 22-27면). 이전까지 조선후기 지식인 사회에서 확인되는 중화담지 사조를 지칭한 표현으로는 전근대에도 원용되었던 ‘소중화’ 혹은 상술한 사조가 막연한 사대주의가 아니었음을 형용하기 위해 정육자가 제시한 ‘조선중화’(정육자, 1998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 연구』, 일지사)가 있다. 그러나 상술한 용어만으로는 엄연한 외래 사유인 중화를 향유하면서도 일정 부분 독자성이 포착되는 당대 지식인들의 다층적 사유를 정치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대두되면서 ‘중화계승’은 그 대안으로 간주된 바 있다(계승범, 2011 『정지된 시간: 조선의 대보단과 근대의 문턱』, 서강대학교출판부, 37면; 김영민, 2013 『조선중화주의의 재검토 - 이론적 접근』, 『한국사연구』 162, 한국사연구회, 224면).

과 이를 통한 의식 구상 작업이 이들이 처했던 시대적 상황과 결코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동편』과 『도동록』의 저술배경, 내용 및 구조, 특징 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도동’ 의식의 실체를 시론해 보고자 한다.

2. ‘도동’의 정의

『도동편』과 『도동록』에서 공히 나타나는 ‘도동’에서 모종의 동류의식이 감지되지만, 그 실체를 살펴보기 위해선 먼저 두 저서의 표제가 동일한 문제의식 하에서 지어졌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도동편』의 경우 自序가 전해지지 않지만 식산이 道南書院에서 『도동편』 수정 작업을 하던 중의 소회를 읊은 시에서 그의 저술 동기와 그가 생각하는 ‘도동’의 의미를 확인해 볼 수 있다. 식산은 해당 시에서 송 말엽 이후로 중원에서는 훈고학이나 사장학, 육왕학 등에 매진하여 程朱의 도학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음을 역설한 후,¹²⁾ 다음과 같이 시구를 잇는다.

우리 조정은 기자의 봉토에 터를 두어, 化育이 元豐에 비겼네
圭壁이 앞뒤로 빛나, 斯文이 하늘에 통할 수 있었네.
考據함이 모두 성인의 규범이라, 곧장 濂閩의 유풍으로 거슬러 올라가네.
끓인 맥 다행히 진중해졌으니, 어찌 鄭玄이 馬融을 스승삼은 것과 같겠는가.¹³⁾

12) 『息山集』卷1, 『自魯東, 轉棲道南書院, 校道東編, 書懷, 示諸君.』, “建陽殷春雷, 聖道不復隆. 餘波架壘爲, 遊騎何忽忽.(宋末, 學者多尙訓詁, 蓋有文勝之弊云.) 歎彼大拍頭, 脫略蠶牛叢.(陸象山絕博文一段工夫.) 高明爲左袒, 師心遂用盅. 浸淫四百年, 天下橫流洪. 許值夷進華, 薛惟敬善躬.(元之魯齋, 明之敬軒最純, 而魯齋仕胡元, 敬軒獨善其身而止耳.) 徑約亂真經, 帶來俱是葱.(西山心經程篁墩附註於末章, 歸重於尊德性, 廢道問學, 實是禪解也.) 有如雛鳥習, 隻翼求上狝. 蓋聞懲荊舒, 實是先膺戎. 寥寥學葩辨, 慷慨徒自雄.(程篁墩作道一編, 挽朱以合於陸陳, 清瀾建作學葩, 通辨以斥之.)”

13) 『息山集』卷1, 『自魯東, 轉棲道南書院, 校道東編, 書懷, 示諸君.』, “我祖奠箕封, 化育比元豐. 圭壁耀前後, 斯文會天通. 考據皆聖軌, 直沂濂閩風. 墜緒幸珍重, 豈是玄師融.”

위 시구를 통해 식산은 중원에서는 정주의 학문이 끊어졌으나 조선의 학술은 곧바로 濂洛關閩의 유풍에 맞닿아 도학 전통을 올바르게 계승할 수 있었음을 드러내었다. 위 글에서의 “玄師融”은 정현이 마옹에게서 수학하다 고향인 산동의 高密縣으로 돌아가자 마옹이 “나의 도가 동쪽으로 갔다.”고 탄식한 일화를 가리키는 데,¹⁴⁾ 해당 일화는 “道東”의 어원으로 지목된다.¹⁵⁾ 그러나 식산은 “玄師融” 뒤에 “우리 동국의 선배들이 도에 있어 어찌 마옹이나 정현에 비할 수 있겠는가.”¹⁶⁾ 라는 내용의 소주를 병기하여 자신이 말하는 ‘도동’이 마옹의 그것과 질적으로 다른 것임을 밝혔다. 이어서 식산은 해당 시의 말미에 문물이 사방에 비어 있음에도 이 강역에 冠帶의 예제가 유지되고 있는 까닭에 정주[洛閩]와 공자[洙泗]의 학문이 동쪽에서 종결될 것이라고 말하였다.¹⁷⁾ 즉, 식산에게 있어 정주의 도학은 유학 전통의 정맥이자 華夷를 가르는 기준이며, 이러한 점에서 ‘도동’은 중원에서 끊어진 유학 전통을 조선의 선배 학자들이 계승하고 완성시켰다는 의미가 된다.

한편, 『도동록』의 경우 성호의 자서가 수록되어 있어, 이를 통해 ‘도동’을 저서의 표제로 선택한 명확한 이유를 유추할 수 있다.

이 기록은 처음엔 원하던 것이 아니었다. 내가 근래에 퇴계선생의 문집을 읽다가 긴 요하여 사람들에게 교훈이 될 만한 곳에는 반드시 점을 찍어 기억해 뒀는데, 점을 찍었는데도 또한 넓어서 기억하지 못하였으니, 이에 날마다 베껴 쓰는 작업을 계획하였다. 이윽고 編簡한 것이 매우 번잡하여 또한 잘 이해할 수가 없었기에 부문을 나누고 종류별로 편집하여 읽는 데 편하게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선생께서 일찍이 저술하신 여러 글들과 그 문인들의 『記善錄』 등과 같은 기록들을 채집하여 부기하였는데, 또 이름이 없을 순 없는지라 『도동록』이라고 명명한 것이다. 이는 실로 우연하게 만든 것이니, 내가 감히 편집하는 책무에 뜻을 뒤서 그랬겠는가. 다만 내가 잇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이니, 내가 감히 남들에게 미치는 공을 망령되이 범하려고 그랬겠는가. 또

14) 『後漢書』, 卷35, 『鄭玄列傳』, “融喟然謂門人曰 鄭生今去, 吾道東矣.”

15) 박지현, 앞의 논문, 139면.

16) 『息山集』 卷1, 『自魯東, 轉棲道南書院, 校道東編, 書懷, 示諸君』, “鄭玄師馬融, 融送玄曰 吾道東, 然吾東先輩之於道, 豈可比融玄哉.”

17) 『息山集』 卷1, 『自魯東, 轉棲道南書院, 校道東編, 書懷, 示諸君』, “冠帶惟斯域, 文物四海空. 儘知洛泗波, 不東靡所終.”

한 이것을 인하여 『퇴계집』 본서를 살펴보려고 한 것이니, 내가 감히 별도의 책을 짓기를 마치 주문공께서 『근사록』 만드신 것처럼 하려고 그랬겠는가.¹⁸⁾

위 글에 따르면, 성호는 『퇴계집』을 읽는 과정에서 확인한 요체들을 항목별로 분류하고 별도로 기재할 필요성을 느껴 『도동록』 저술을 결심하고, 『퇴계집』 뿐만 아니라 良齋 李德弘(1541~1596)의 『溪山記善錄』 등 퇴계 직전제자의 자료까지 박람하여 퇴계의 언설을 정리하였다.¹⁹⁾ 이 때 주자가 ‘四書의 입문서’²⁰⁾로 평가한 『근사록』을 의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자가 선배 학자들의 언설을 수집하여 도통의 묘맥을 설정한 것처럼 성호 역시 퇴계를 도통의 적전으로 설정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도동’이라는 표제 선정은 이러한 의도의 연장선상에서 중원의 주자에서 동국의 퇴계로 도통이 전해졌음을 드러내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도동록』 발문을 지은 貞山 李秉休(1710~1776) 또한 성호가 학문에 뜻을 둔 초기부터 퇴계를 존승한 까닭에 『도동록』을 저술하였으며, 여기서의 ‘도동’이 주자의 도가 퇴계에 전해졌음을 의미한다고 보았다.²¹⁾ 이러한 시각에 기반하여 정산은 『도

18) 『道東錄』 自序, “是錄非始願也。余近時觀退溪先生集, 其於喫緊可爲人訓處, 必點焉而識之, 點焉而又泐不能記, 則乃抄書爲常日計。既而編簡甚煩, 又不可而領會, 分門類輯爲便於緝閱。該博見先生所嘗撰著諸書, 及其門人記善等錄, 輒採而附焉, 又不可而無名, 故命曰道東錄。茲實偶爾成者, 余敢有志于編摩之責歟。特以備余忘而已, 余敢妄干于及人之功歟。又將因是以尋究于本書, 余敢把作別錄如朱文公近思書之爲歟。”

19) 『도동록』에서는 『退溪集』과 『記善錄』(『良齋集』 卷5~6)을 포함하여 퇴계의 『理學通錄』, 『四書三經釋義』, 『啓蒙傳疑』, 月川 趙穆(1524~1606)의 『言行總錄』(『月川集』 卷5, 『退溪先生言行總錄』), 鶴峯 金誠一(1538~1593)의 『拾遺』(『鶴峯集』 續集卷5, 『退溪先生言行錄』), 山天齋 李咸亨(1550~?)의 『心經質疑』를 참조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심경질의』의 경우 일반적으로 간재의 저서로 알려져 있으며, 산천재의 저서는 간재와의 공동 저작인 『心經講錄』이라 칭하지만 성호는 산천재의 저서를 『質疑』로 인식하였다.(『星湖全集』 卷68, 『山天齋李先生小傳』, “至己巳春, 老先生乞退歸鄉, 先生往謁受業, 時年弱冠, 仍留隴雲精舍講心經, 老先生亟許之曰爲人開悟刻意向學, 共處令人有益, 自是書牘往來, 日有精進, 明年三月撰心經質疑成, 與良齋李德弘所錄, 合爲一書.”)

20) 『朱子語類』 卷105, “近思錄好看。四子, 六經之階梯, 近思錄, 四子之階梯。”

21) 『貞山雜著』 卷9, 『謹書道東錄後』, “我季父星湖先生, 尊尙退溪, 不下於朱子, 志學之初, 卽讀退溪之文而深慕之, 輒抄其要語, 兼採其門人所記言之可爲訓者, 分門類編, 名曰道東錄, 其

동록』을 『근사록』의 입문서로 평가함으로써 『도동록』-『근사록』-사서-육경의 도학 체계를 상징하여 성호의 본지가 『이자수어』가 아닌 『도동록』에 있다고 판단하였다.²²⁾

두 학자가 공통적으로 저서의 표제를 ‘도동’으로 선정한 이유는 중원에서 기원한 사문의 도가 동국으로 전해졌음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다만 성호가 어린 시절 가형들을 따라 식산을 만난 이래로 20년이 넘도록 두 사람 간의 교류가 없었던 까닭에,²³⁾ 두 학자가 ‘도동’이라는 표제를 직접적으로 공유한 상태에서 저술에 착수하였다고 보기에는 힘들다. 그럼에도 두 사람의 지향은 동일한데, 식산은 중원에서는 사라져가던 성리학의 명맥이 조선의 선배학자들에 의해 이어졌다고 보았으며, 성호 또한 주자의 嫡傳을 퇴계로 상징하여 중원의 성리학이 조선 학자인 퇴계에 의해 만개하였다고 보았다. 성호가 식산에 비해 ‘도동’의 중심을 퇴계로 특징하기는 하였지만, 식산 또한 평소 퇴계를 주자의 적전으로 간주하였다는 점에서 볼 때 그에게 있어 ‘도동’의 중심은 성호와 동일한 셈이다.²⁴⁾

意蓋謂朱子之道，傳于退溪。”

- 22) 『貞山雜著』卷9, 『謹書道東錄後』, “朱子嘗曰 四子, 六經之階梯, 近思錄, 四子之階梯. 秉休敢謂 道東錄, 又爲朱子近思錄之階梯, 後學所當尊奉誦習, 著爲東國之一經者也. 第其書, 久在草稿中, 先生晚年, 因門人尹某安百順所稟, 令其修正, 改名李子粹語, 今見行本是也. 秉休竊念後人如欲見先生編摩眞蹟, 命名本旨則疑莫如元本.”
- 23) 성호의 기록에 따르면 어린 시절 식산과 설계, 옥동의 탄금대 모임에 참관한 후 별도의 교류가 없다가 20여 년이 지난 1723년 8월에 原州에서 재회하였으며, 이듬해인 1724년(甲辰)에 식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교류를 재개하였다.(『星湖全集』卷9, 『答息山李先生(甲辰)』, “自前秋拜辭之後, 豈不欲敬奉緘款, 用替向往之私, 恒自汨溺於喪葬憂憾, 忽忽焉無餘念久矣.” : 『星湖全集』卷51, 『送息山李處士序』, “瀼昔在童叟, 納拜於李先生, 中間落落晨星餘二十年, 尙記使得將命, 不果於輕絕, 故置諸懷中, 終不敢忘也. 瀼以今年八月東入原峽, 至先壘行汎掃禮, 將返聞先生適自嶺外至, 亟操几杖以從, 坐語移晷, 頗聞爲學次第, 以爲平生一大欣幸.” : 『星湖全集』卷66, 『息山李先生行狀』, “瀼記昔齠髻, 從諸兄旅遊於忠原之彈琴臺, 先生在座, 雖望見其顏色, 當時蚩蒙無識知, 不能有以請肄簡諒.”)
- 24) 『息山集』卷3, 『答上雪軒從大父』, “朱子後未有如退溪之純, 所教當矣. 此非吾東人阿好之言, 足爲天下之公論也.”

3. '도동' 의식 형성의 동인

그렇다면 식산과 성호가 비슷한 시기에 “道の 東傳”을 드러내고자 한 동인은 무엇인가? 서론에서 언급한 것처럼 18세기 초반은 서인 노론 정권이 들어서고 노론의 주도 하에 주자학과 ‘중화계승의식’이 國是의 지위를 차지하던 시기로, 1710년경의 저작인 『도동편』과 『도동록』은 바로 이 시기에 저술된 것이다.

병자호란 이후 조선에서는 對明義理論과 對淸復讎論이 尊周論을 거쳐 중화계승 의식으로 변화함으로써 조선이 중화 정통을 계승한다는 관념이 부상하였다. 특히 노론은 명조 멸망 일주갑인 1704년에 遂菴 權尙夏(1641~1721)를 필두로 화양동에 萬東廟를 설치하여 명 神宗(萬曆帝, r. 1572~1620)과 毅宗(崇禎帝, r. 1627~1644)을 향사하고, 肅宗(r. 1674~1720)의 의지로 설치된 大報壇 설립에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중화계승 의식을 정치적, 학술적으로 선점하였다. 중화계승 상징물 건립을 주도한 노론의 이론적 바탕은 그들이 해석하고 절대화한 주자학이었다.²⁵⁾ 실제로 동시기 노론계 학인들의 학술 활동은 주자학을 정교하게 다듬어 정교한 학술체계를 수립함으로써 춘추의리정신을 선양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²⁶⁾

일련의 상징물 건립을 통한 중화계승 의식의 선점은 비노론계 학인들에게 있어 초당파적 이데올로기의 피탈을 의미하였다.²⁷⁾ 이러한 점에서 만동묘 건립과 노론

25) 조성산, 2009 「조선후기 소론계의 고대사 연구와 중화주의의 변용」, 『역사학보』 202, 역사학회, 55-56면.

26) 이는 수암의 학술 활동에서 그 면면이 확인된다. 수암의 학문과 사상, 그리고 평생 사업은 평생 춘추대의와 관련된 사업에 집중하였으며 주자서를 정리하는데 정력을 쏟았던 스승 우암의 사업을 계승하여 직(直)의 심법(心法)과 춘추의리(春秋義理)를 드러내는 일이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김문준, 2008 「수암 권상하의 춘추정신과 도학사상」, 『한국철학논집』 23, 한국철학사연구회 참조.

27) 당대 영남 남인의 산림이었던 葛庵 李玄逸(1627~1704) 또한 1703년에 자신의 글 가운데 尊周大義를 표명한 글을 수집하여 『尊周錄』을 저술한 점에서 볼 때, 중화계승의식은 당대의 조선 성리학자들의 초당파적 인식이었음이 확인된다.(『葛庵集』 附錄 卷1, 「年譜」, “二十九年癸未. …… 編次尊周錄.(先生早有大志, 欲爲國家, 伸大義於天下, 如諸葛忠武侯之爲者, 迨其季歲, 相時度勢, 知不可有爲, 然尊周一念, 炳然如丹, 時聞中州有風颯之響, 輒誦老

의 행보를 비판한 식산의 1704년 저작 『만동사의』는 당시 남인계 학인들의 견해를 대변한 셈이다.²⁸⁾ 만동묘와 대보단의 건립은 당대의 국제질서와 성리학적 의리론의 길항 속에서 이루어졌지만, 이는 달리 보면 노론이 추진한 정치한 성리학 연구가 상술한 두 제향소라는 가시적 성과물로 현현했다는 의미가 된다. 이 때문에 식산은 『만동사의』에서 중화전통의 적법한 계승자임을 자처하는 노론 지식인들의 가시적 성과물이 ‘삼가의 응철’이나 ‘계씨의 여제’와 다름없다고 보았다.²⁹⁾ 식산에게 있어 노론의 주자학적 사유의 귀결처는 결국 ‘儻禮’와 ‘淫祀’인 셈이다. 식산으로서 노론이 가시화한 ‘중화계승’에 상응하면서도 저들과 차별되는 사유를 제시하여 저들이 무너뜨린 명분을 바로세우고 중원에서 소멸된 중화전통을 학문적으로 올바르게 계승할 책무가 주어진 것이다. 『만동사의』 직후 식산의 학술 활동이 『성리대전』의 구성에 준하여 한국 유학자들의 학설만을 수록한 『도동편』의 저술이란 점은 노론의 행보가 ‘도동’ 서적 저술과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한다.³⁰⁾

반면 성호의 경우 그에게서 만동묘에 대해 별도의 언급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화계승 상징물 건립이 『도동록』과 관련되었다고 보기에는 힘들지만, 이 점이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그의 ‘도동’ 서적 저술이 무관함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성호의 중형 섬계는 희빈 장씨의 처벌을 주장했던 노론 金春澤(1670~1717)이 나아가 세자까지 해하려 하므로 제거해야 한다는 취지의 상소를

驥伏櫪之句以自傷. 至是次其平日遺懷論事之作及進御文字有及於皇朝爲一編, 名之曰尊周錄, 以寓其匪風下泉之思, 而重有感於明年大歲又涸灘之句.)”)

- 28) 만동묘 건립과 관련하여 식산과 논변한 수암 문인 秋潭 成晚徵(1659~1711)은 노론의 사업을 비판한 사람이 식산 뿐만이 아니었다고 술회하였다.(『秋潭集』卷7, 『萬東祠是非辨○甲申』, “迺者一邊譏議之徒, 或曰非其鬼而祭之, 詔也, 或曰以士而祭天子, 儻也. 强者怒於言, 儒者怒於色.”)
- 29) 『萬東祠議』(『息山全書』Ⅱ), “成王賜魯重祭, 伯禽受之, 成王之賜, 伯禽之受, 俱非也. 故孔子曰 魯之郊禘, 非禮也, 周公其衰矣. 其因襲之弊, 至於三家, 以雍撤, 季氏用八佾, 孔子尤嚴斥其罪. 泰山在魯國封疆之內, 魯君所當祭, 而季氏旅焉, 孔子又責冉有之不能救. 推此以觀之, 萬東之祠, 能免孔子之罪之乎.”
- 30) 만동묘 건립을 즈음한 시기의 식산의 행보와 사유에 대해서는 이원준, 2020 『중화계승 상징물에 대한 식산 이만부의 견해와 그 이론적 기반』, 『국학연구』 43, 한국국학진흥원 참조.

1706년에 올랐고, 이로 인해 노론의 집중 공격을 받고 여러 차례의 국문 끝에 장살당하게 되었다. 이는 성호가 과거를 포기하고 학문에 전념하게 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된 사건으로,³¹⁾ 이에 대해 성호는 훗날 1724년 식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술회하였다.

저는 생각건대 옛날에 입신하는 데에 급박하여 이쪽의 한 가지 일(학문에 종사함)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세속에 응하여 명예를 구하는 것에만 분주하였다가 중간에 禍難을 당하여 뜻과 기운을 잃고 도모하던 것을 잃은지라 과거시험을 위한 공부에 뜻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된즉 제 기세는 문을 닫아걸고 엎드려 날로 세상과는 어긋나게 될 것 같았는데, 집안에 장서 수천 권이 있어 때때로 이를 읽는 것을 소일하는 바탕으로 삼았습니다.³²⁾

성호는 식산에게 거업을 포기하고 한동안 각종 서적을 탐독하는 일에 천착하였다고 말하였다. 중형의 장살 이후 위 편지를 작성하기 전까지 성호는 『도동록』(1710년경) 뿐만 아니라 『四七新編』 초고(1715년)와 『孟子疾書』(1718년), 『大學疾書』(1720년)를 완성하고 『小學疾書』와 『藿憂錄』 저술에 착수하였다.³³⁾ 성호 가문에 소장된 서적들의 성격상 해당 시기에 탐독한 서적은 보다 다양하였을 것으로 보이지만,³⁴⁾ 자신의 견해를 정리하여 저서화한 순서로 볼 때 그가 초기에 집중적으로 열람했던 서적은 경서와 퇴계서였다. 즉, 각종 서적 탐독을 통해 학문을 온축

31) 이병휴의 家狀에 따르면 성호는 섬계의 장살 직전해인 1705년(乙酉)에 과거를 응시하였으나 이름 쓰는 것이 격식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탈락한 경험이 있다.(『星湖全集』附錄卷1, 『家狀[從子秉休]』, “乙酉朝家設增廣科, 先生以策發解, 因試所錄名違式, 不赴會試, 明年丙戌仲兄遭禍, 自是無意於世, 遂棄舉子業.”)

32) 『星湖全集』卷9, 『答息山李先生(甲辰)』, “凜念昔年迫有立, 未嘗知有此邊一事, 只奔走於應俗求名, 中罹禍難, 隕穫失圖, 便無意於學業文字, 則其勢將杜門跽伏, 日與世齟齬, 家有藏書數千, 以時繙閱, 爲消遣之資.”

33) 김문식, 최석기 외, 2012 『성호 연보』, 『성호 이익 연구』, 사람의 무늬, 403-406면 참조.

34) 김용걸은 인용문에서 언급하는 수천 권의 장서가 성호의 부친이 청나라 사신으로 왕래하면서 사온 서적이었으며, 여기에는 서학서 또한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았다(김용걸, 2004 『이익사상의 구조와 사회개혁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4면).

하던 초기에 성호가 집중했던 분야는 경학과 더불어 퇴계학이었으며, 저술 시기만 놓고 보면 퇴계학을 이해하는 것을 보다 앞선 작업으로 삼은 것이다. 성호는 서인에 대한 두려움을 평생 떨치지 못했는데,³⁵⁾ 이런 그에게 있어 당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린 직후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은 다름아닌 퇴계설에 대한 지식이었다. 섬계의 상소문은 이후 격화되는 당쟁 속에서 남인의 정파적 정체성을 공고히 하고 비노론 계열의 유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였는데,³⁶⁾ 향후 성호의 학술활동 또한 이와 결부되어 남인계 지식인으로써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공고히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도동록』은 이러한 성호의 학술 지향의 태동을 보여주는 저작으로, '도동'이라는 표제 선정 또한 이와 관계되어 있는 셈이다.

4. '도동' 의식의 특징

식산과 성호의 '도동' 서적 저술은 중원에서 발흥한 사문의 도가 조선에서 만개하였음을 드러내기 위한 작업으로, 남인계 지식인으로써의 책임의식과 위기의식이 표제 선정과 저술의 동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두 학자가 각각 모본으로 삼은 『성리대전』과 『근사록』의 내용과 구성, 수집 자료의 범위 등이 상이한 까닭에 두 저서를 동일한 범주의 저작이라고 예단하기에는 난점이 존재한다. 이는 저술의 동기와 목적만으로는 논문의 주자학 절대주의에 상응하면서도 분명한 학술적 차이를 보이는 '도동' 의식의 실체를 추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도동' 의식의 실체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두 서적의 근본적 차이를 넘어서는 공통된 특징을 포착할 필요가 있다.

35) 『順菴集』 卷16, 『函丈錄』, “西人學問, 專以謹守規矩四字, 爲涉世無病敗之斷案. 故知識終甚鹵莽, 爲可恨也. 世途危險, 余是畏約人也, 何敢有一毫求知之心, 而西人或多來見, 自是傷弓之鳥, 常恐有何機關在中也.”

36) 송혁기, 2013 「섬계 이잠의 병술년 상소연구」, 『민족문화연구』 60,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참조.

우선 식산과 성호는 자신의 저서에 한국 유학자들의 언설만을 수록함으로써 한국 유학의 독자적 발전상을 드러내려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두 학자 모두 퇴계를 도학의 정점이자 도통의 적전으로 설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퇴계의 언설만을 수집한 성호 『도동록』은 물론이거니와, 상대 계과의 학설을 수록하여 균형잡힌 시각의 저술을 한 식산 또한 『도동편』 내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퇴계가 도학의 적전임을 드러내고 있다. 먼저 『도동편』의 구성을 살펴 볼 경우, 식산은 권1에 퇴계의 『天命圖說』과 『聖學十圖』를 배치하였다. 『도동편』의 모본인 『성리대전』의 경우 크게 주렴계, 장형거, 주자 등 송대 성리학자들의 주요 성리서를 그대로 수록한 25권까지의 전반부와 주제별로 여러 학자들의 학설을 발췌하여 모아 둔 26권 이후의 후반부로 나뉜다. 『도동편』의 체제 상 권1이 『성리대전』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인 점에서 볼 때, 식산은 해당 부분에 퇴계의 주요 도설을 배치함으로써 퇴계가 설정한 성리학 체계가 곧 그가 구상하는 ‘도동’의 기준임을 밝힌 것이다.

〈표 1〉 『성리대전』과 『도동편』 구성 비교

	卷數	1~25	26~27	28	29~37	38	39~42	43~56	57~58	59~64	65	66~69	70
『性理大全』	내용	주요 성리서 ³⁷⁾	理氣	鬼神	性理	道統 聖賢	諸儒	學	諸子	歷代	君道	治道	詩文
	卷數	1	2~3		4~5	6	7~9	10~12	13~15		16~17		18~20
『道東編』	내용	『天命圖說』 『聖學十圖』	理氣		心性	聖賢 諸儒	諸儒	學	治道		歷代		詩賦 (失傳)
	卷數	1	2~3		4~5	6	7~9	10~12	13~15		16~17		18~20

권1의 구성뿐만 아니라 권6의 ‘聖賢’조의 구성 또한 『도동편』의 구성상에서 식산이 퇴계를 도통의 적전으로 상징하는 조치가 확인되는 지점이다. 『도동편』 성현조에 수록된 인물은 주공과 공자, 四聖(顔, 曾, 思, 孟),³⁸⁾ 六賢(周敦頤, 張載, 邵雍, 程顥, 程頤, 朱熹)인데, 이 가운데 북송오자에 대한 언설은 오로지 퇴계설만이

37) 『太極圖』, 『通書』, 『西銘』, 『正蒙』, 『皇極經世書』, 『易學啓蒙』, 『家禮』, 『律呂新書』, 『洪範皇極內篇』

38) 다만, 『도동편』 내에는 子思에 대한 기록은 없다.

수록되어 있으며 주자에 대한 언설 또한 퇴계설의 비중이 압도적이다.³⁹⁾ 이러한 구성상의 조치들은 도통 전수자에 대한 포폄을 퇴계가 전담한 것으로 간주하게 함으로써 그 또한 적법한 도통의 전수자임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식산이 『도동편』을 통해 퇴계를 도학의 적전으로 상정하고 있음은 『도동편』에 수록된 율곡설의 비중과 내용에서도 확인된다. 율곡설 수록은 영남 유림과 알력이 생기는 근본 원인인 동시에 학파에 구애되지 않는 식산의 시각을 나타내는 주요한 특징이지만, 식산이 수록한 전체 율곡설의 수는 퇴계설의 1/3 수준에 불과하다.⁴⁰⁾ 더욱이, 수록된 율곡설의 내용과 구성 또한 퇴계의 그것과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 이는 식산이 『도동편』 작성 시 퇴·율 인용의 주안점을 각각 달리하였음을 시사한다.

〈표 2〉 『도동편』에 수록된 퇴계설, 율곡설 수량 및 율곡설/퇴계설 비율

권수	내용	수록 퇴계설	수록 율곡설	비율(율/퇴)	순위
2	理氣一	14	3	21%	11
3	理氣二	7	0	0%	15
소계		21	3	14%	5
4	心性一	21	5	24%	8
5	心性二	17	4	24%	9
소계		38	9	24%	4

39) 주자에 대한 언설은 퇴계설 뿐만 아니라 西厓 柳成龍(1542~1607)과 사계의 설 또한 배치되어 있다. 다만 식산이 수록한 퇴계의 언설이 주자가 도학의 전수자임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글임에 반해, 사계의 설은 단순한 주자의 행적을 칭송한 것이다.(『沙溪遺稿』卷10, 「語錄○宋時烈錄」, “若無朱子則堯舜周孔之道晦矣. 雖二程, 其所釋經傳, 多有可疑處, 又有難從處. 栗谷常曰 余幸生朱子後, 學問庶幾不差矣.”)

40) 다만 영남 유림으로부터 지속적인 압박을 받았던 까닭에 율곡설은 본래 의도보다 축소 수록되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만동묘 건립건으로 갈등이 있었지만 식산과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던 추담은 수암에게 사우들과 『도동편』이라는 서적을 기획하고 있음을 밝히는데, 『성리대전』을 모본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추담의 『도동편』은 식산의 저작과 모종의 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秋潭集』, 卷2, 「上遂菴先生」, “門生忘其固陋, 與一二士友, 欲取東方文集中精粹之言, 略倣性理大全編輯, 以爲道東編.”) 이러한 점에서 추담이 식산의 작업에 참여했거나 최소한 율곡설 선정과 관련한 자문역을 맡았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노론계 인물인 추담이 율곡설 수록에 소극적으로 행동했을 가능성은 낮다.

6	聖賢/諸儒一	20	2	10%	14
7	諸儒二	12	2	17%	13
8	諸儒三	18	4	22%	10
9	諸儒四	16	0	0%	15
소계		66	8	12%	6
10	學一	37	12	32%	7
11	學二	27	20	74%	4
12	學三	16	3	19%	12
소계		80	35	44%	3
13	治道一	6	11	183%	2
14	治道二	9	3	33%	6
15	治道三	1	6	600%	1
소계		16	20	125%	1
16	歷代一	6	5	83%	3
17	歷代二	5	3	60%	5
소계		11	8	73%	2
총계		232	83	36%	

위 도표에 따르면 「치도」를 제외하면 율곡설의 비중이 퇴계설보다 높은 경우는 없으며, 성리학의 철학적 내용을 담고 있는 「이기」·「심성」, 그리고 도통 설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성현」·「제유」에서의 율곡설 비중은 퇴계설에 비해 현격히 낮다. 여기서 식산이 율곡의 성리학자적 측면보다는 경세가, 교육자적인 측면에 집중하여 율곡설을 수록하였다는 점이 확인된다. 실제로 식산은 율곡이 제시한 독서법을 그의 교육 철학에도 적용함으로써 율곡의 경세가적 측면을 고평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례로 그는 『도동편』 권10의 '독서' 조항에 『擊蒙要訣』 「讀書」장에 서술된 독서차서를 수록하였는데, 이후 그가 趙顯命(1690~1752)과 낙육재 운영 방안을 토의하면서 이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인다.⁴¹⁾ 이는 율곡의 시무책을 고평가했

41) 『息山集』續集卷4, 「答趙時晦」, 〈別紙樂育齋節目〉, “所讀之書, 則以五書(小學, 大學, 論語, 孟子, 中庸)五經(詩經, 禮記, 書經, 易經, 春秋), 循環理會, 以儒家諸書(近思錄, 家禮, 心經, 二程全書, 朱子大全, 語類, 節要及他性理之說), 講究, 有餘力, 則兼看歷代史傳, 若製述儒生, 欲兼取詞章, 則如馬, 班, 韓, 柳, 歐, 蘇之類, 亦許看讀, 至於異端雜技不正之書, 不可頃刻披閱.(倣栗谷擊蒙要訣.)”

던 성호의 시각과 상통하는 지점이 있다.⁴²⁾ 한편 항목별 퇴계설의 구성과 비중은 율곡설의 그것과 상반되는데, 이는 식산이 퇴계설을 수록하는 데 있어 그의 사상 가적 측면과 도학자적 측면에 주목하였음을 보여준다.

퇴계설만을 수록한 『도동록』뿐만 아니라 『도동편』 또한 퇴계를 도학의 적전으로 상정한다는 점에서 식산 또한 그의 ‘도동’ 의식이 퇴계를 중심으로 전개됨을 알 수 있다. 다만 ‘도동’ 서적을 저술하면서 두 학자 사이에 직접적인 교류가 없던 까닭에 이들의 퇴계설 인용 양상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실제로 『도동록』 가운데 『도동편』과 중복 수록된 퇴계설이 전체 언설의 1/4 수준에 그치며, 이기심성론과 관련된 「천도」, 「심성」편보다 「인물」편에서 겹치는 문장의 수와 비율이 더 높다.⁴³⁾ 그러나 두 저서의 초반부를 대조할 경우 두 저서의 유사한 지점이 발견된다.

42) 『星湖僊說』 卷11, 「變法」, “國朝以來, 屈指識務, 惟李栗谷柳磻溪二公. 在栗谷太半可行. …… 如栗谷之監司久任, 小郡合大, 奴不從父等說, 一一中窾, 何憚而不舉. 惟改貢案一事畢竟施行, 猶有賦輕稅重之歎, 自是力量不大, 措置局狹故也. 苟使栗谷磻溪爲之, 必有可觀也.”

43) 이는 『도동록』과 『도동편』이 겹치는 문장 수의 비율을 계산한 다음의 도표에서 확인된다.

권수	번호	편명	『도동록』 총 문장 수	『도동편』과 겹치는 문장 수	비율	순위	비고
上卷	1	天道	17	4	24%	7	
	2	心性	44	16	36%	4	
	3	讀書	61	8	13%	11	
	4	窮格	40	11	28%	5	
	5	涵養	46	19	41%	2	2개조는 소주와 겹침
	6	力行	52	12	23%	8	
	7	警戒	60	10	17%	10	
下卷	8	居家	52	6	12%	12	
	9	接物	23	2	9%	16	
	10	處變	8	2	25%	6	
	11	教導	18	2	11%	13	
	12	人物	71	38	54%	1	5개조는 소주와 겹침 5개조는 본주, 소주모두 겹침
	13	異端	10	4	40%	3	
	14	事君	11	1	9%	15	
	15	出處	18	2	11%	13	
	16	政事	11	2	18%	9	
총계			542	139	26%		

〈표 3〉 『도동편』 및 『도동록』, 『이자수어』, 『근사록』 구성 비교

『道東編』*	권수	2~3	4~5	6~9			10~12			13~15			16~17				
	내용	理氣	心性	聖賢/諸儒			學			治道			歷代				
『道東錄』	순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편명	天道	心性	讀書	窮格	涵養	力行	警戒	居家	接物	處變	教導	人物	異端	事君	出處	政事
『李子粹語』	순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편명	道體	爲學	窮格	涵養	力行	居家	出處	治道		政事	教導	警戒	異端	聖賢		
『近思錄』	순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편명	道體	爲學	致知	存養	克己	家道	出處	治道	治法	政事	教學	警戒	辨異端	觀聖賢		

* 卷1, 卷18~20(失傳) 제외

위 도표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도동록』의 구성은 모본인 『근사록』의 그것과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 우선 『근사록』 첫 장인 「도체」에 해당되는 부분이 「천도」와 「심성」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 이어서 「위학」 또한 「독서」로 변형되어 있는데, 수록된 내용 또한 학문 방법론 일반을 이야기하는 「위학」에 비해 「독서」는 경서와 기타 서적의 독법이 주를 이룬다. 또한 『근사록』에서는 후반부에 있는 「경계」가 전반부에 배치되어 있는 등 두 서적의 후반부 배치가 상이하며,⁴⁴⁾ 『근사록』 각 편에 상응하지 않는 「접물」과 「처변」이 추가되어 있다.⁴⁵⁾ 마지막으로 「관성현」에 해당하는 부분이 가치중립적 표현인 「인물」로 되어 있다. 상술한 차이점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바로 『근사록』 첫 장인 「도체」편이 「천도」와 「심성」으로 분리되어 있다는 점이다.

『도동록』의 첫 장은 「천도」로 명명되어 있지만 理氣에 대한 언설이 집중적으로

44) 『도동록』은 상하로 나뉘어지는데, 「경계」편까지는 상권, 「거가」편 이후는 하권에 수록되어 있다.

45) 『이자수어』에서는 「접물」은 「거가」에, 「처변」은 「접물」에 각각 편입된다.(『李子粹語』凡例, “此書雖做近思篇目, 而言語文字之外, 兼採平日行事以實之. 又於居家篇下, 附以接物, 政事篇下, 附以處變, 蓋欲使其言行無所遺闕也.”) 一, 『近思錄』則 「治道」 「治法」, 各爲一篇, 而此書則只著 「治道」, 一篇以包之. 蓋李子平日論治文字, 絕少故也.”

수록되어 있다. 일례로 「천도」편 내에서 『도동편』과 중복 수록된 문장 4개 가운데 3개 문장은 『도동편』 권2 「理氣一」의 ‘총론’ 항목에 수록되어 있으며,⁴⁶⁾ 나머지 한 문장 또한 『도동편』 권5 「心性二」의 ‘理’ 항목에 수록되어 있다.⁴⁷⁾ 『근사록』 「도체」에서는 주렴계의 『태극도설』의 언설을 첫 문장으로 수록한 후 ‘理氣’와 ‘心性’에 대한 언설들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반면, 『도동록』에서는 「도체」에 상응하는 내용이 「천도」와 「심성」에 각각 나누어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구성은 오히려 첫 두 항목을 「이기」-「심성」 순으로 배치한 『도동편』의 구성과 유사하다. 이는 성호가 자득적 방법론을 바탕으로 하는 근기 남인의 학술 지향에 기반하여 퇴계를 이해하고 『도동록』을 작성했음을 보여준다.⁴⁸⁾

5. ‘도동’ 의식의 공유

식산과 성호의 저작은 ‘도동’이라는 동일한 표제 이면에 한국 유학자의 학설만을 대상으로 편집하였다는 점과 더불어 퇴계를 한국 유학의 정점으로 간주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아울러 ‘이기’ ‘심성’을 구분하는 편차 구성에서도 두 학자 모두 근기 남인의 학술 지향을 지니고 있다는 점 또한 확인된다. 이러한 공통점이 저술 당시 두 학자 간에 별 다른 교류가 없는 상황에서 형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46) 『退溪集』 卷35, 「答李宏仲 甲子」, “凡有貌象形氣而盈於六合之內者, 皆器也, 而其所具之理, 卽道也. 道不離器, 以其無形影可指, 故謂之形而上也. 器不離道, 以其有形象可言, 故謂之形而下也. 太極在陰陽中, 而不雜乎陰陽, 故云上耳, 非謂在其上也. 陰陽不外於太極, 而依舊是形氣, 故云下耳, 非謂在其下也.”; 『退溪集』 卷25, 「與鄭子中別紙」, “蓋自其眞實無妄而言, 則天下莫實於理, 自其無聲無臭而言, 則天下莫虛於理, 只無極而太極一句, 可見矣.”; 『退溪集』 卷35, 「答李宏仲」, “理之爲體, 不囿於氣, 不局於物, 故不以在物者之小偏, 而虧其渾淪者之大全也.”

47) 『鶴峯集』 續集卷5, 「退溪先生言行錄」, 34면, “事有大小, 而理無大小, 放之無外者, 此理也, 斂之無內者, 亦此理也, 無方所無形體, 隨處充足, 各具一極, 未見有欠剩處.”

48) 정도원은 『도동록』에서 나타나는 지향이 남명 조식과 여헌 장현광, 미수 허목의 심학과 유사하다고 보았다.(정도원, 앞의 논문, 397-399면 참조.)

이들이 교류를 재개한 이후 각자 기존에 구상했던 ‘도동’이 공유될 경우 보다 강화된 ‘도동’ 의식이 형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성호는 식산과의 교류를 재개한 이후 식산에 대한 존경과 더불어 『도동편』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지속적으로 표출하였다. 일례로 성호는 1741년 식산이 자신의 행장을 써 줄 것을 유언으로 남긴 사실을 전해들은 후 행장을 작성하였는데,⁴⁹⁾ 『도동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또한 동방 ‘理學’의 계통은 晦齋(李彥迪, 1491~1553)와 퇴계 제선생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커졌고, 이를 이어서 여러 현인들이 나와 名論이 번갈아 밝아졌다. 그러나 문헌이 갖추어지지 않아 후세에 그 실상을 고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식산께서) 널리 수집하고 종류별로 모아서 『도동편』 9권을 만드셨다.⁵⁰⁾

성호는 『도동편』이 회재와 퇴계로부터 발흥하고 여러 선배 유학자들에 의해 꽃피운 동국 ‘리학’의 실상을 상고할 수 있게 해주는 역작이라고 평가하였다. 『도동편』에 대한 성호의 긍정적 인식은 식산에 대한 挽詩 三首에서도 확인된다. 그는 만시의 첫수에서 영남 지역의 참된 유자가 없어진 뒤에 식산이 태어나 사문의 도를 이었음을 밝히고, 마지막 수에서 前賢으로부터 전수받은 바가 있었기에 그가 『도동편』을 완성할 수 있었다고 서술하였다.⁵¹⁾ 『도동편』은 당대에 율곡설 수록으로 인해 퇴계학의 적통인 영남에서 공인받지 못하였지만 근기 지역의 성호로부터는 도학을 온전히 표상한 저작으로 평가받았다. 이는 식산의 ‘도동’ 의식 또한 성호로부터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음을 시사한다.

49) 『星湖全集』 卷17, 「答洪敘一(辛酉)」, “息山狀錄, 自顧讓劣, 無以堪之, 而雅有執役之願, 况聞有遺意在, 義何敢辭.”

50) 『星湖全集』 卷66, 「息山李先生行狀」, “且東方理學之緒, 至晦退諸先生始大, 嗣是羣賢輩出, 名論迭彰, 然文獻不備, 後來將無以考信, 故搜羅類彙, 作道東編九卷.”

51) 『星湖全集』 卷3, 「挽息山李先生(萬數〇三首)」 第一首, “敷腴顏色稱臞形, 山澤精神想典刑. 大嶺以南存法度, 眞儒去後敞門庭. 文將天喪三分在, 道與心通一點靈. 百世何人能有眼, 乾坤留卷識如馨.”; 第三首, “心亨迹屈到華顛, 神會前修密付傳. 無可如何天下事, 那能不作道東編. 音徽正潤應千里, 懷仰方深遽九泉. 數十年來交契盡, 後生無淚灑空阡.”

반면, 성호 자신의 '도동' 의식은 『도동록』이 『이자수어』로 개정됨에 따라 당초의 기획대로 드러나지 못할 위기에 봉착하였다. 실제로 순암의 교열을 거친 『이자수어』는 『도동록』의 「천도」와 「심성」을 「도체」로 합쳐 보다 철저하게 『근사록』의 체계를 따르고 문장 수록에 있어서도 차이를 드러내는 등 성호의 당초 기획과 멀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도동록』에서 이기론과 심성론을 별개의 장으로 나눈 것이 『도동록』에서 확인되는 성호의 '도동'이 식산을 비롯한 선배 근기 남인에게 학인의 학술 지향과 닮아 있음을 보여주는 장치라는 점에서 순암의 조치는 『도동록』 저술 당시 성호의 학술 지향과 거리를 둔 셈이다.⁵²⁾ 그렇다고 해서 성호가 당초의 기획 의도와 학술 지향 자체를 폐기하지는 않았는데 이는 『이자수어』 편집 과정에서 성호가 취한 몇 가지 조치에서 확인된다.

『이자수어』로의 전환 과정에서 원저자인 성호와 편집을 주도한 순암 사이에서는 몇 차례의 의견 충돌이 발생하였는데, 그 중 두드러지는 부분이 표제의 개정과 관련한 것이다. 당초 순암은 『李先生禮說類編』에 맞추어 『李先生粹語』로 개정하려고 하였는데,⁵³⁾ 이에 성호는 표제의 '이선생'을 '李子'로 개정할 것을 관철시켰다.⁵⁴⁾ 특정 학인을 '子'로 지칭하는 것이 유학계에서 지니는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성호의 의도는 표제를 통해 '孔子'-'朱子'-'李子'(退溪)로 이어지는 도통의 줄기를 드러내고자 한 것으로, 이는 『도동록』 저술 당시에 추구했던 지향점과 맞닿아 있다.

52) 정도원은 『이자수어』 「도체」가 전반부인 '理學'에서 퇴계의 理와 體用에 관한 입론을 시작으로 氣質의 문제까지 수록하고 후반부인 '心學'에서 "心爲太極"을 첫 장으로 두어 퇴계의 심학적 귀결을 제시한 반면, 『도동록』 「천도」에서 서술된 '理學'은 氣와 관련된 내용과 음양오행 문제가 수록되었고 뒤이은 「심성」 역시 이를 받아 "神者 陽之靈"으로 시작함을 지적하고, 이러한 양자의 차이는 퇴계학 전통을 추구한 순암과 선배 근기 남인의 입론과 맞닿아 있는 자득적 퇴계 읽기를 시도한 성호의 학술 지향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보았다(정도원, 위의 논문, 394-399면).

53) 『順菴集』 卷3, 「答邵南尹丈書(壬申)」, "道東錄, 改名粹語, 非敢不告長者而先爲此標題也. 當初謄寫時, 原冊無衣, 恐其浮弊, 以休紙爲假衣, 而信筆書以李先生粹語五字于冊面. 後來思之, 更覺未安, 而原來性情簡率, 因以封還, 今有不當輕改長者冊面題目之教, 奉讀, 悔咎實難容喩."

54) 『星湖全集』 卷24, 「答安百順(壬申)」, "粹語之目, 曾於二程書中見之, 用此標題, 實所允愜. 愚謂自有東邦以來, 未有盛於退陶, 則直稱李子, 國人莫不知其爲退陶也, 此意何如."

『이자수어』로의 개정이 자기의 초기 지향과 차이가 있음을 직감한 성호는 『도동록』 저술 당시의 ‘도동’ 의식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는데, 손자인 李九煥(1731~1784)에게 『도동록』 초고를 필사하도록 지시하고 집안에서 활용할 때에는 『이자수어』로의 개정 이전 판본을 써도 무방하다고 알린 것도 이러한 조치의 일환이었다.⁵⁵⁾ 이러한 점에서 그가 『이자수어』의 자서(自序)에 자신의 기존 저작을 『도동편』이라고 지칭한 사실은 의미심장하다.⁵⁶⁾ 성호가 남긴 기록 내에서 “道東編”이라는 표현은 상술한 자서를 제외하면 식산의 저서를 지칭할 때에만 등장하며, 자신이 초기에 편집한 퇴계설 모음집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道東錄”이라고 지칭하였다.⁵⁷⁾ 심지어 樊巖 蔡濟恭(1720~1799)이 작성한 묘갈명에서도 성호의 저작은 “道東錄”으로 기록되어 있다.⁵⁸⁾ 즉, 본인은 물론 후학들이 줄곧 『도동록』으로 지칭하던 자신의 저서를 『이자수어』 자서에 한정하여 『도동편』이라고 지칭한 것이다. 성호는 자신의 초기 지향과 다른 방향으로 개정된 저작의 서문에 의도적으로 동류의 지향점을 지닌 선배 학자의 서적과 동일한 표제로 자신의 저서를 표기한 셈이다. 이러한 조치는 성호가 『도동록』 저술 당시의 지향을 식산의 ‘도동’과 연계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6. 마치며

식산의 『도동편』은 순수하게 한국 유학자들의 언설을 항목별로 정리한 것으로,

-
- 55) 『貞山雜著』 卷9, 『謹書道東錄後』, “且堂姪九煥云 先生嘗有家藏本因舊無妨之教, 故謹將元本繕寫一通, 藏之家中.”
- 56) 『星湖全集』 卷50, 『李子粹語序』, “泮生也後, 不得爲其徒, 徒能讀其書而悅之, 竊自以不克該識其遺訓爲大羞吝, 輒採其要而錄之, 名以道東編.”
- 57) 『星湖全集』 卷14, 『答權台仲(乙丑)』, “疇昔之日, 泮就遺集中採可師可法者, 分門類彙, 爲道東錄一冊.”; 『星湖全集』 卷14, 『答尹幼章(壬申)』, “百順謂道東錄當如近思錄規模.”
- 58) 『星湖全集』 附錄卷1, 『墓碣銘[蔡濟恭](并序)』, “尊慕退溪, 無異朱子, 則言之見於遺集, 及門人所記者, 編輯如近思之例, 名曰道東錄.”

이는 그 구성의 치밀함이나 내용의 방대함에 있어서 공전의 성과물이다. 특히 도통의 적전을 퇴계로 상정하면서도 율곡의 경세가적 면모를 존중한 점에서, 학파와 정파에 관계없이 한국 유학의 발전상을 보여주고자 한 식산의 신념이 돋보인다. 성호의 『도동록』은 퇴계의 언설들을 『근사록』의 체계에 준하게 배치함으로써 한국적 도학 전통의 기원을 밝히고 이를 도학으로 진입하는 입문서로 삼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두 학자 모두 '도동' 용어를 표제로 선정함으로써 중원에서 민멸된 '사문의 도'를 조선에서 이어받고 발전시켰음을 드러내었다. '道東'이라는 표현은 조어 형태만 놓고 보면 오늘날 전지구적 유행을 선도하는 한국산 문화매체에 접두사 'K'를 붙여 'K-Pop', 'K-Drama' 등으로 지칭하는 것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식산과 성호는 '도동' 저술을 통해 이른바 'K-도학', 또는 'K-유학'을 구상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두 학자의 초기 저작의 표제를 통해 확인된 '도동' 의식은 주자학 그 자체에 대한 정치한 분석과 춘추의리 정신에 바탕을 두며, 종내에 명나라 황제를 모신 제향소라는 가시적 상징물로 구현화된 노론식의 '중화계승' 의식에 상응하면서도 확연히 구분되는 지점이 있다.

계파에 구애되지 않은 자료 선정은 식산의 '도동'에서의 '道'가 정파적 시각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도통'보다는 조선에서 온전한 형체를 유지하게 된 '도학' 그 자체였음을 보여준다. 다만, 그 또한 퇴계를 도학의 정점이자 도통의 적전임을 지속적으로 명시한 만큼, 『도동편』을 통해 '도통의 東傳' 또한 드러내고자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반면, 성호의 경우 퇴계의 설만을 정리하여 '도동' 의식을 표출하였다는 점에서 그의 '도'가 '도통'의 뜻에 밀접하였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당대에 『근사록』이 사서를 이해하기 위한 계제로 인식되었다는 점에서 볼 때, 『도동록』에는 '도학의 동전' 또한 확인된다. 이 때문에 『이지수어』보다 『도동록』을 계승하고자 한 정산은 『도동록』-『근사록』-사서-육경 체계를 구상하였다. 두 학자에게 있어 '도동'은 각자의 강조점은 있지만 '도학의 동전'과 '도통의 동전'의 요소가 모두 내포되어 있다.

식산과 성호의 저서에서 포착되는 '도동' 의식은 어디까지나 기존에 구축된 학문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만큼 성리학적 사유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이들은 한국 성리학자의 설만으로 주자학 그 자체를 강화하는 노론식 '중화계승'에 상응하는 사

유를 제시하는 모습을 보이나, 외래 사유인 중화를 완전히 탈각한 한국 고유의 사유를 창조하려는 것은 아니었다.⁵⁹⁾ 그러나 일정한 독자적 발전을 이룬 한국 유학의 범주 내에서 도학적 전통과 도통의 묘맥을 찾으려고 했다는 점에서 한국적 유학, 나아가 한국적 사유에 대한 이들의 고민이 발견된다. 본고에서는 표제가 겹치는 두 저서의 구조적 특징을 통해 ‘도동’ 의식의 실체를 살펴보았지만, 보다 구체적인 ‘도동’ 의식의 형태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해당 저서에서 나타나는 퇴계설 이해 양상에 대한 보다 정치한 분석이 요구된다. 아울러 ‘도동’ 의식이 식산과 성호만의 독특한 사유가 아닌 한국철학의 한 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술한 작업뿐만 아니라 성호 후학들의 행보 등을 통해 ‘도동’ 의식의 향방을 살펴봐야 한다. 이는 이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두겠다.

논문투고일(2021. 4. 24), 심사일(2021. 5. 24), 게재확정일(2021. 6. 11)

59) 이는 『만동사의』 저술의 주된 내용이 기존 연구성과에서 주장한 노론의 지나친 모화주의에 대한 비판이 아닌 예제의 훼손에 대한 비판이었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무엇보다 식산은 만동묘와 같은 성격의 중화계승 상징물인 대보단에 대해서는 그 시의성을 인정하였는데, (이원준, 앞의 논문, 352-364면 참조.) 대보단에 대해선 성호 역시 그 시의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인다. (『星湖僿說』 卷11, 『大報壇配祭』, “天子而祭於諸侯, 於古無攷, 然明既國亡, 宗廟丘墟, 設有其子孫爲庶, 追遠有誠, 則不容不祭, 與臣子等也. 禮雖先王未之有, 可以義起者, 此之謂也.”) 대보단에 대한 두 학자의 태도는 ‘도동’ 의식이 한반도에서 자생하지 않은 사유인 ‘중화’를 탈각하기 위해 제시된 것이 아님을 방증한다.

참고문헌

- 李萬敷, 『道東編』,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중앙도서관 소장자료.
李 瀼, 『道東錄』,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자료.
- 李 滉, 1989 『退溪集』(『韓國文集叢刊』 29-30), 민족문화추진회.
李 珥, 1989 『栗谷全書』(『韓國文集叢刊』 44-45), 민족문화추진회.
金誠一, 1989 『鶴峯集』(『韓國文集叢刊』 48), 민족문화추진회.
李德弘, 1990 『艮齋集』(『韓國文集叢刊』 51), 민족문화추진회.
金長生, 1988 『沙溪遺稿』(『韓國文集叢刊』 57), 민족문화추진회.
李萬敷, 1993 『息山全書』, 여강출판사.
李萬敷, 1996 『息山集』(『韓國文集叢刊』 178-179), 민족문화추진회.
李 瀼, 1997 『星湖全集』(『韓國文集叢刊』 198-200), 민족문화추진회.
_____, 1977-1979 『星湖僊說』, 민족문화추진회.
安鼎福, 1999 『順菴集』(『韓國文集叢刊』 229-230), 민족문화추진회.
李秉休, 2002 『貞山雜著』(『近畿實學淵源諸賢集(四)』),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 李萬敷(이창섭 譯), 1992 『道東編』, 목란문화사.
李 瀼, 安鼎福(이광호 譯), 2010 『李子粹語』, 예문서원.
계승범, 2011 『정지된 시간: 조선의 대보단과 근대의 문턱』, 서강대학교출판부.
김문식, 최석기 외, 2012 『성호 이익 연구』, 사람의 무늬.
김용걸, 2004 『이익사상의 구조와 사회개혁론』, 서울대학교출판부.
정옥자, 1998 『조선후기 조선중화사상 연구』, 일지사.
허태용, 2009 『조선후기 중화론과 역사인식』, 아카넷.
- 강병수, 2011 『星湖學派의 東國 經學 思惟 - 家學과 自得의 학문추구 방법으로부터 -』, 『조선시대사학보』 57, 조선시대사학회.
김문준, 2008 『수암 권상하의 춘추정신과 도학사상』, 『한국철학논집』 23, 한국철학사연구회.
김영민, 2013 『조선중화주의의 재검토 - 이론적 접근』, 『한국사연구』 162, 한국사연구회.
박지현, 2020 『『이자수어』 편찬에 나타난 성호의 퇴계학 계승의식』, 『한국학』 43, 한국학중앙연구원.

- 송혁기, 2013 「섬계 이잠의 병술년 상소연구」, 『민족문화연구』 60,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신항수, 2015 「이익의 당대사 해석과 청남 개념의 정립」, 『역사와 실학』 56, 역사실학회.
- 이원준, 2020 「중화계승 상징물에 대한 식산 이만부의 견해와 그 이론적 기반」, 『국학연구』 43, 한국국학진흥원.
- 정도원, 2014 「星湖 李瀼의 退溪 읽기와 學派分裂 — 星湖와 近畿南人の 학문적 접점과 “道東”論의 궤리」, 『유교사상문화연구』 58, 한국유교학회.
- 조성산, 2009 「조선후기 소론계의 고대사 연구와 중화주의의 변용」, 『역사학보』 202, 역사학회.
- 정재훈, 2013 「식산 이만부의 학문과 『도동편(道東編)』」, 『국학연구』 23, 한국국학진흥원.
- 함영대, 2007 「성호 이익의 학문형성과 식산 이만부」, 『성호학보』 4, 성호학회.

AbstractKeunki Southerners' Consciousness of Dodong道東 through Yi
Manbu's *Dodongpyeon*道東編 and Yi Ik's *Dodonglok*道東錄

Lee, Wonjun *

This study examines the background, content,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Siksán Yi Manbu's *Dodongpyeon* and Seongho Yi Ik's *Dodonglok*, and contemplates Keunki(suburb of Seoul) Southerner's consciousness of 'Dodong'. 'Dodong' is a term meaning that the origin tradition of Confucianism has been passed down from China to Korea and is in full bloom in Korea. Seongho presented a new academic trend to the contemporary Korean academia, and Siksán also had a love and frequent consciousness of Korea's own land and history, and their 'Dodong' writings show their pride in Korean Confucianism at the time. The two writings both set Toegye Yi Hwang as the pinnacle of Dohak(Learning of the Way) and the successor of Dotong(transmission of the Way), and many similar points are found in composition.

The two writings were written at a time when Noron's notion of Confucian-cultural succession became visible symbols such as Mandongmyo and Daebodan. Noron's preoccupation with the notion of ideas of Confucian-cultural succession refers to the deprivation of bipartisan ideology for Southerners who shared the memories of the Japanese invasion in 1592 and the Manchu invasion in 1636. Southerner intellectuals needed to provide a corresponding and distinct consciousness against Noron's ideology. As a result, unlike Noron, who conducted a sophisticated analysis of Zhu Xi's thought and expressed it as Mandongmyo and Daebodan, the two scholars advocated the pride of Korean Confucianism centered on Toegye as the consciousness of 'Dodong'.

Key words : Siksán Yi manbu, Seongho Yi Ik, Keunki Southerners, *Dodongpyeon*, *Dodonglok*, Consciousness of Dodong

* Postdoctoral Researcher, Department of Philosophy, Xiamen University.